ISSUE 02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산업보건

김양우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업보건의 한계와 농업

산업보건은 언제나 해당 산업의 구조적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 틀을 벗어나면 더 이상 기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다시 그 산업에 종속되는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1970~80년대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던 산업은 섬유와 화학 제조업이었고, 2000년대에는 전자 산업이 부흥했다. 그리고 2020년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점에는 공산품을 집 앞으로 로켓배송하는 외국인 기업이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노동자를 단순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에 투입하며 운영하고 있다.[1] 언제나 자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늘날 농업인의 산업보건과 직업병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농업이라는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 농업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과거 교과서에서 다루던 온열질환,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할까?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연구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각이 지금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농업인의 산업보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한다.

농업인 고령화 추이
(65세 이상 비율)

2000년
21.7%

2024년
55.8%

2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

직업성 질병과 농업

직업성 질병, 즉 직업병은 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자에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개별 유해인자 노출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 또는 산업 전체를 고려한 역학적 접근(epidemiological approach)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이런 분석이 사실상 어렵다. 농업 자체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농림어업은 종사자뿐 아니라 가구 수와 가구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통계청(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농림어업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2] 농가 가구 수는 97만 4천 가구, 농가 인구는 200만 4천 명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11만 6천 명(55.8%), 70세 이상은 78만 5천 명(39.3%)으로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였으나 2015년 38.4%, 2020년 42.3%로 급격히 증가했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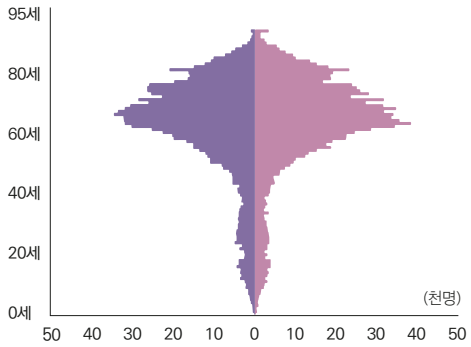
한국 농가에서 연간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불과하며 논벼 재배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 구조와 비교하면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표1. 농가 인구 연령별 비율

연령대	구분	2000년	2015년	2020년
40세 미만	인구 (천 명)	1,489	522	395
	비율 (%)	37.0	20.3	17.0
40-64세	인구 (천 명)	1,666	1,060	939
	비율 (%)	41.3	41.3	41.0
65세 이상	인구 (천 명)	876	987	980
	비율 (%)	21.7	38.4	42.0
합계	인구 (천 명)	4,031	2,569	2,314
	비율 (%)	100	100	100

자료 농림어업인구총조사 결과 재인용

그림 1. 2024년 대한민국 농가인구 인구 피라미드



(단위: 천명)

	농가인구		
	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89	46	43
20~29세	72	40	32
30~39세	64	37	27
40~49세	101	53	49
50~59세	281	134	147
60~69세	611	294	317
70세 이상	785	376	410
합계	2,004	979	1,02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전통적 산업보건 프레임의 한계

온열질환, 근골격계질환, 급성 중독 등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 인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인구 구조와 산업 축소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산업보건 관점에서 근골격계질환이나 농약 중독만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노동 인구를 전제로 한 직업 의학이나 산업보건의 고전적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농업인의 건강 문제는 농업 산업의 붕괴를 넘어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와 직결된다.

정신건강과 자살

새롭게 주목할 문제의 첫 번째는 정신건강, 특히 농업인의 자살이다. 통계상 농업인은 초고령사회 길목에 들어선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외로움(loneliness)이 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연구가 JAMA Psychiatry에 보고되었다.[3]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 사회적 접촉이 부족한 상태를, 외로움은 이를 인식하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뜻한다. 이는 우울증,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며, 대부분의 노인은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고, 효과적인 증거 기반 개입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2010년 파라쿼트를 포함한 고위험 농약 전면 금지 이후 농약 자살률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농촌 자살률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까지 이어졌다.[4,5] 80세 이상 농촌 자살률은 도시의 두 배 수준이며, 신체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부부와 독거노인은 우울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내거나, 위험 신호 없이 바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6] 따라서 농업인 정신건강과 자살 위험은 시급한 보건학적 문제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전체 작물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통계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문제 규모를 추정조차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 H-2)와 계절근로 취업허가제(C-4, E-8)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지만, 2023년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외국인 노동자가 531% 증가했다.[7] 이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완화한 결과로, 실제 규모와 변동은 추정조차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작물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8]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농업 산업 문제와 직결됨을 보여준다.[9]

영화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빗대어, "농업인을 위한 산업보건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소멸, 초고령화, 사회적 고립 속에서 눈에 보이는 농업인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 교과서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개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이본영, "쿠팡 1년간 직원 1만5천 명↑ 전체 10만 명 육박… 2년째 증가 규모 1위" 한겨레, 2025년 6월 18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3458.html
2.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5년 4월 17일
3. Blazer, Dan.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a Mental Health/public Health Challenge." JAMA Psychiatry 77, no. 10(2020): 990-91.
4. Kim, Yangwoo, Jeehee Min, and Soo-Jin Lee. "Suicide Overall and Suicide By Pesticide Rates Among South Korean Workers: A 15-Year Population-Based Stud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6, no. 23(2019)
5. 김수린. "농촌 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과제" KREI 이슈리포트, PRP042(2025)
6. 안순태, 조정희, 이하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의 자살 이해력(suicide literacy) 평가" 보건사회연구, Vol. 41, No. 3, pp.55-74.
7. 통계청, 보도자료 "올해 1분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년 대비 531% 증가" 2023년 4월 13일
8. 정봉수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법률, 2021년 7월
9.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4.